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

‘여아낙태 현실’ 극복 위한 근본적 대안

11일 한국여성대회서 1백70명 선언, ‘호주제 폐지’ 까지 운동 벌일 터

‘부모성 함께 쓰기’는 일회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는 것일 까, 아니면 새로운 여성운동의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부모성 함께 쓰기’가 여성계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부모성 함께 쓰기’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지난 3월 9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지은희, 이하 여연)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마련한 제13회 한국여성대회를 통해서다. 여성대회 폐회 직전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문을 낭독한 이효재 정대협 대표는 “태아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로 인간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면서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을 채택하게 됐다”고 밝힌 뒤 “우리는 성 차별적인 생명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여아낙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주제와 동성동본혼을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명에 응한 이는 여성계 인사 57명, 학계 35명, 문화인 17명, 정치인 3명을 비롯 1백70명.

행사 당일에는 이효재 대표, 이미경 의원, 고평순 홍명환의원 외 각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대한 관심이 큰 인기를 모았다. 명함 뒷면에는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의 취지를 적었다. 행사장 로비에는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참여합니다’는 부스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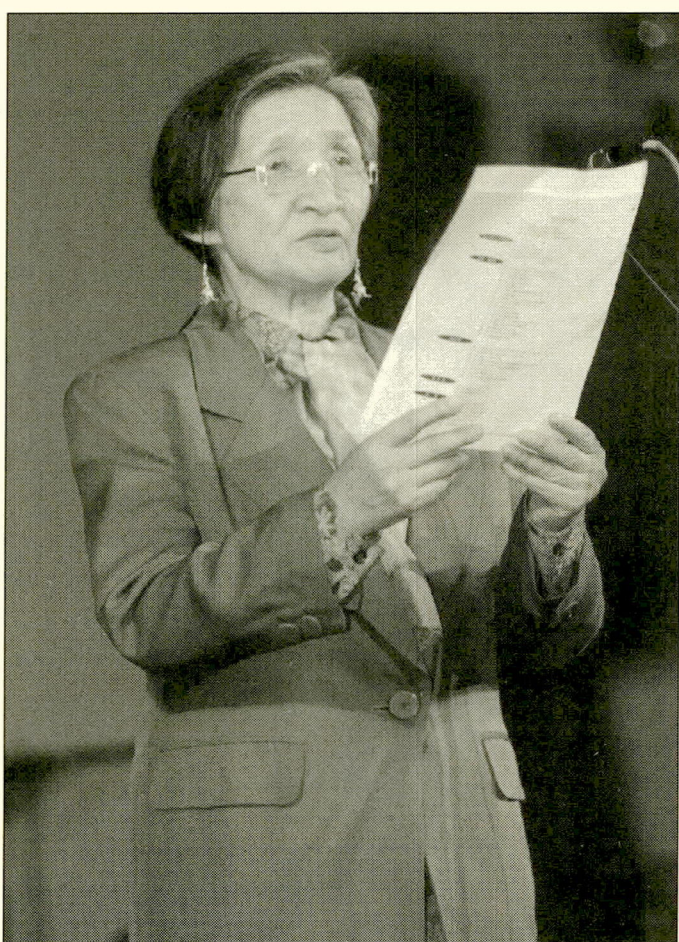
되어 “나도 엄마성 쓰고 싶다” 등의 문구를 쓴 배지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이들로 가득했다. 연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제2의 창씨개명, 자이제 성을 갈자”는 제목의 대자보를 백주년 기념관 입구와 로비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여성계 인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 대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이다.

“여성의 독립선언” 지지
“복잡, 번거로와” 반대 잇달아

이 운동의 발단은 지난 1월 23일 여연과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장영희) 주최로 열린 “성비불균형 해소와 대책방안” 토론회 부터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여성계 인사 20여명은 당일 토론회가 끝나고 뒷풀이 장소에서 “성비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의에 적극 동의하면서 ‘운동본부(가칭)’를 결성. 3월 9일 한국여성대회에서 선언식을 갖기로 하고 발기인 1백명을 모으기로 했다. 발기인 모임은 여연과 대한여한의사회가 각각 전화서명을, 또하나의 문화의 천리안 통신서명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소식에 확산되자 첫 반응은 “신선하다,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천리안 KFLOWER 아이디를 사용하는 소설가 한림화 씨는 “대찬성-그런 발기인 모임도 있나요”란 제목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니 기쁘다. 그동안 그



11일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을 낭독하고 있는 이효재 정대협 대표.

리고 싶어도 눈치보였던 이들이 과감하게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내 이들은 애초부터 부모성을 물려받아 ‘고한밥’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부터 한김림화라든지 김한림화라고 하면 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밖에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여성계가 여성 억압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호주제 폐지를 그토록 주장해왔지만 법개정은 항상 실패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같은

운동의 동기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엄마성 쓰기는 독립적인 삶, 평등한 삶, 주체적인 삶의 선언이다”는 등의 글을 통해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대의에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부모성 함께 쓰기가 번거롭다, 낯설다, 복잡하다, 현실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씨

는 3월5일 ‘엄마의 성’을 제목으로 한 칼럼에서 “위낙 뿌리깊은 부권사회이므로 의식전환이란 협산이 가로막고 있고 또 아버지인 김박성과 어머니인 이최성 사이에 난 자녀의 성은 김박이최의 4자복성이 돼야 하는 건지... 실천에는 난제가 많다. 다만 남아선호나 성비파괴, 상속제도 등에 선언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한 천리안통신 이용자는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느낀다. 실현가능성 없는 얘기는 낭비일 뿐이며 성이 자꾸 늘어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내용을 올렸으며 L4840G, X13 아이디 사용자는 “말도 안된다”, “장난을 그만둬라”는 강도높은 비난으로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또 여성계의 호주제 철폐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유림측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의 논리대로라면 강경한 반대 입장이 예상된다.

“원리 앞면 간단하다”
여성계, 후속 대안 마련 부심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 여성계측에서는 “한가지 원리만 알며 간단히 풀리는 문제”라고 단언한다.

먼저 “성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일관된 구

칙만 따르면 아무런 혼란이 없다는 것. 가령, 최이하나(부)와 김정두리(모)가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경우 아버지의 첫번째 성(할아버지) ‘최’와 어머니의 두번째 성(외할머니) ‘정’을 함께 사용해 최정세라가 된다. 최정세라(모)가 박주철수(부)와 결혼해 낳은 아이는 같은 원리로 박정미나가 된다. 대를 이어 외할머니의 성이 이어지는 것이다.

“현실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선은 하나의 문화운동 차원으로 이해바란다”는 입장이다. 이 운동의 실무 책임자격인 고평순 홍명환의원 원장은 “법, 제도, 관습이 여남평등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평화대행진”이라며 “이미 기대 이상의 상당한 호응과 참여를 얻고 있다”고 말한다. 고평순 원장은 “3월 9일 여성의날에 발기인으로 동참한 이이효재 교수, 손이덕수 교수, 조한혜정 교수, 장운필화교수, 오한숙씨 등을 비롯해 초기 발기인을 보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홍보활동과 실천내용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도 회원을 중심으로 홍보와 거리서명을 계획하고 있다.

‘부모성 함께 쓰기’가 과연 여성들의 축제의 날에 벌어진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이 운동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미 빚나간 것으로 보인다.

(최진숙 기자)

부모성 함께 쓰기 • 열려라 물음표

“가부장제 부조리 치료위한 문화운동”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간사 고은광순씨가 답한다

〈여성신문〉은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 운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여한 의사회〉 편집부장 고은광순씨(홍명환의원 원장)를 PC통신 인터넷으로 만나봤다.

1. 이 운동을 혈통 파괴운동이 아니냐, 일부 여성들이 극렬한 방식으로 남성 제압을 노림으로써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성과 이름의 의미가 결국 무엇이나, 개개인이 기호로 불러져도 무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혈통’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반쪽 씨앗인 남성의 정자와 또 다른 반쪽의 씨앗인 여성의 난자와의 결합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그간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가치로 생각하였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계를 철저히 부정하고 무시하였던 대단히 잔인한 관념인 것이지요.

여성의 자기주장을 곧바로 ‘도전’ ‘대결’로 느끼는 남자들이 있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는 것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상대를 존

중하고 배려하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하고요.

성과 이름 중에서 여남평등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성불가침의’ 부계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 성의 사용에 융통성을 주자는 것이므로 이 운동에 혼란이나 도전, 과격등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되어왔던 절반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는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은 전보다 더욱 인격적으로 존중될 것입니다.”

2. 어떤 이는 어머니 성을 따르더라도 그 어머니 성은 결국 외할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니 부계혈통의 계승임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 17세기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 성씨가 없는 사람이 40%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김씨,이씨 등이 많은 것도 세도가의 가문에 편입되기 위해 본관과 성을 바꾸잡기로 고쳤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계성에 너무 집착하여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버마, 에티오피아 등 지구촌에는 성씨 없이도 잘들 살아가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을 무시한 ‘혈통’ 가문 ‘대잇기’ 등의 강박적 허구에서 벗어나 당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이 모두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자신의 부모성 자체가 마음에 안들므로 아예 성 자체를 새로 창조해 자신이 시조가 되자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성을 함께 썼을 때 어감이 어색한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럴 경우엔 외할머니의 성, 또는 그 이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현재 쓰는 성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이니만큼 새로 성을 창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시도된 남자중심의 가계확립이나 일본이 도입한 호주제가 모두 왕권의 강화와 식민지 수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욕심에서 출발한 비민주적 제도였으며 이러한 논리를 때문에 여성이 이등국민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므로 여남평등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각도에서 지혜를 모아 또다른 불평등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4. 대부분 언론매체에선 늘상 아버지 성 다음에 어머니 성을 쓰는 보기를 사용해, 일반인들은 이 운

동에 동참하려면 당연히 아버지 성 다음에 어머니 성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9일 부모성 함께 쓰기 선언자 중에는 본인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어머니 성을 앞에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운동은 여남평등을 위한 문화운동이므로 평등사회를 위해 본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형식이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 동성동본혼

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아들을 통한 대잇기’의 강박관념이 희석될 것입니다. 동성동본, 종정 등의 관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간 여성운동이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여남차별논리에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의 호적법은 결혼이라는 것이 두 남녀의 새로운 출발을 뜻하기 보다는 여성에게 시집으로 들어갈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입적(남편집으로 호적을 파서 옮기는 제도)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지요. 따라서 명절의 의미도 내용상으로는 ‘남자 집안의 조상을 모시기 위해 시집 온 여성을 수단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중국의 경우 죽으면 모두 화장하고 그 가족중 형편 당하는대로 사후 1년에서 3년 동안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제세문화, 명절문화 역시 양성중심의 문화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남성 중심의 ‘근근한’ 혈족문화가 희석되어 양성중심 문화로 변화하면 바른 정치, 사회, 문화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기자)